

# 05

토종종자 보전을 위한 한일 워크숍

## 씨앗과 농민의 자율성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 씨앗과 농민의 자율성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jskkjs@krei.re.kr

토종 종자를 지키려는 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모인 귀한 자리에 불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토종 종자 보전 운동과 관련하여 아는 바가 없고, 무슨 조사나 연구도 수행한 적이 없어서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무슨 별스런 인연인지 주최 측에서 제게 토론편을 써 내라 하시니, 두서없지만 짧은 생각을 몇 자 적어 올립니다.

### 1

옛말에 ‘굶어 죽어도 씨앗 오쟁이는 베고 죽어라’고 했습니다. 농민에게 씨앗은 목숨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농민에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심지어 농민이 아니지만 씨앗과 목숨을 바꾼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20년 전 대학생 시절에 역사 시간에 들은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여 레닌그라드를 공격했습니다. 레닌그라드 남쪽에는 파블로프스크 시험장(Pavlovsk Experimental Station)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 시험장은 1926년에 설립된 것으로, 당시에는 세



계 최초로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종자 은행이었습니다. 1941년 여름, 독일군이 소련으로 진군하자 스탈린은 레닌그라드의 박물관에 있는 예술작품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그러나 파블로프스크 시험장에 있었던 40만 종에 달하는 씨앗이나 뿌리 등은 방치되었습니다. 독일군은 레닌그라드 일대를 포위하고 봉쇄했습니다. 시험장의 농학자들은 시험장을 지키기로, 아니 종자를 지키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해가 지나고 봄이 되면 수백만에 달하는 레닌그라드 시민에게 식량을 공급해야 할 테고, 농사지을 종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독일군의 봉쇄가 계속되면서 레닌그라드 시내에서는 이미 수만 명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시험장의 농학자들은 종자를 지키려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굶주린 시험장 직원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종자에 손댈 것을 두려워하여 종자를 보관한 방을 모두 잠그고 혼자서는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갈 수 없게 했습니다. 한겨울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추위에서 씨감자 등을 보호하려고 종이, 건물 잔해, 박스 등 태울 수 있는 것은 모두 태웠습니다. 굶주린 주민들이 시험장을 습격할까 염려하여 24시간 불침번을 서면서 씨감자 저장고를 지켰습니다. 1942년 1월에 땅콩 전문가였던 알렉산더 스투킨(Alexander G. Stchukin)이 연구실 책상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쌀 담당이었던 드미트리 이바노브(Dmitry S. Ivanov)도 굶어 죽었

습니다. 이바노브 박사의 연구실에는 법씨를 보관한 수천 개의 자루가 있었지만 죽는 순간까지도 그것에 손을 대지 않았습다. 머지않아 독일군의 포위는 풀렸지만, 이 시험장에서 겨울에 굶어 죽은 농학자는 3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키던 종자에 손대기를 거부하고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저는 ‘목숨만큼 소중한 씨앗’이라는 말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돈만 있으면 온갖 먹을거리를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세상에서 목숨만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씨앗의 소중함을 알기는 쉽지 않은 듯합니다. 심지어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씨앗이 그토록 소중하고, 농민이 씨앗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걸까요?

## 2

산업화된 농업에서 농부는 그저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자’라고만 정의됩니다. 어쨌거나 농축 산물을 생산하는 노동과정(labor process)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종사자’라고 규정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산업화된 농업의 전형적인 사례로 하림에 닭을 납품하는 양계 농가의 처지를 살펴봅시다.<sup>1)</sup> 이른바 수직계열화(vertical integration) 체제가 정립된 이 분야에서 농가는 본사(하림)로부터 병아리를 공급받고, 사료도 공급받고, 양계장 시설을 갖출 자금도 용자받고, (양계 농업인이 정한 것이 아니라 본사에서) 정해진 축종의 닭을 정해진 기간 동안 키워서 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소득, 즉 본사로부터 받는 돈을 ‘사육수수료’라고 부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소개한 『대한민국 치킨전』의 저자 정은정은 질문합니다. “한국에서 한 해에 도축되는 닭은 약 8억 마리에 이르고, 그중 절반 이상은 치킨으로 튀겨 먹고 있다. 치킨을 그렇게 많이 먹어내고 있지만 정작 닭은 누가 키우는지 헛갈린다. ‘하림’이나 ‘마니커’ 같은 육계회사가 키우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닭똥 치워가며 양계장에서 일하는 양계 농민이 키우는 것인가?”(263쪽). 분명히 양계 농민이 닭을 키우기는 하는데, 왜 ‘누가 닭을 키우는지 헛갈린다’고 할까요? 제 생각에는 식물이나 동물을 키우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농민’을 규정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 듯합니다. ‘키우되 자율적인 선택과 노력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만 온전한 의미에서 ‘농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농업 노동과정에 있어 자율성을 지닌 주체라야 ‘농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자율성은 무엇일까요? ‘사육 수수료’ 또는 ‘재배 수수료’를 받는 것이 주된 소득이라면 그 사람은 농업 노동자일 수 있지만 농민이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sup>2)</sup> ‘농민의 자율성’ 문제를 조금 더 들여다보려 합니다. 반 데 플루흐(J. D. van der Ploeg)의 주장을 소개합니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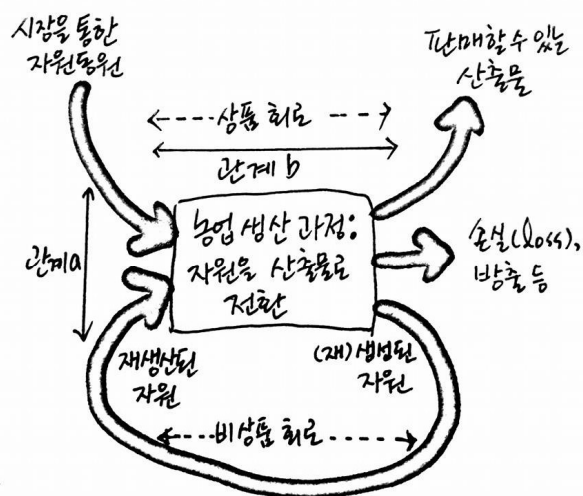
농민의 조건을 규정하는 세 번째 요소는 시장과 맺는 구체적인 관계이다. 농민은 스스로 유연성, 유동성,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외부 세계와 연결하려 하는데, 시장도 그런 연결 관계의 일부분이다. 농민은 자신이 외부와 맺는 관계가 적절하다고 여길 때라야 계약을 맺거나 규모를 확대하려 한다. 즉, 외부와의 관계에 얽매어 빠져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은 최대한 피하려 한다. ... (중략) ... 의존적 관계 속으로 들어서는 것이 인상적이고 용감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강력해 보

1) 자세한 이야기는 『대한민국 치킨전』(정은정 지음)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2) 물론, 제 관점에서는 농업 노동자도 농업인이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만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주체로서 농업 노동자가 농업에 복무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주체인 농민이 농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습니다.

3) 『The New Peasantries: Struggles for Autonomy and Sustainability in an Era of Empire and Globalization』(새로운 농민: 제국의 시대, 지구화의 시대에서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쟁, 2008)에서 전개된 논의입니다.

일 수 있다 하더라도, 농민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 ... (중략) ... 농민의 세계에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걸모습 밑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어느 농장에서 송아지 출산율이 높다면, 그 농장의 농민이 지닌 성공적인 소 사육 전략 및 능력 그리고 ‘새로운 혈통’을 제공하는 다른 농민과 맺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표지인가? 아니면, 큰 비용을 들여서 다른 곳에서 사육한 소를 구하고, 값비싼 농후사로 급여 비율을 높이고, 수의사 비용을 많이 들이고, 소의 수명주기를 단축했음을 뜻하는 것인가? 인상적인 걸모습을 갖춘 대규모 농장 앞에서 던져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그 농장은 많은 빚을 바탕으로 꾸며졌고, 따라서 많은 [이자 등의] 금융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중략) ... 한편, 이 같은 불신에 반비례하여 농민은 지역의 토착적 자원, 사회적 자원, 물질적 자원을 더 신뢰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농민들이 공유하는 문화 속에서는 노동에 뒤따르는 미덕이 강조된다. 특히 스스로 관리하는 노동과정 안에서, 그리고 그런 노동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사물이나 관계의 가치를 강조한다. 그래서 퇴비를 잘 만들거나, 암소를 잘 번식시키거나, 성질 좋은 말을 길러내는 등의 **기술예술(art)**이 농민 문화의 중요한 요소다. 이로써 영농활동이 사회적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농민은 고된 일, 헌신, 열정 지식 따위에 가치 창출의 중요한 근원이라는 중요성을 부여한다. 심지어 고도로 현대화된 사회, 예를 들자면 (신고전경제학적 유형의) 경제적 합리성 추구만이 허용되는 네덜란드 같은 곳에서도 농부들은 대부분 스스로 ‘취미’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주의 깊게 설명한다. 그런 취미(가령, 농장에서 직접 이뤄내는 소 축종 개량)는 농민 자신의 노동, 지식, 경험, 희망 등이 안내 표지판이 되는 회색 지대다. 이 회색 지대에서는 의존적 관계를 통해 외부로부터 도입된 처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중략) ... 분석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농활동은 ‘자원 동원’, ‘자원을 (최종) 산물로 전환하기’, ‘최종 산물 마케팅 및 재사용’이라는 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자원 동원’과 ‘최종 산물 마케팅 및 재사용’, 이 두 과정은 시장과의 관계를 전제하며 사실상 그것을 뜻한다. 두 번째 과정 ‘전환’도 점차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런데 이 세 과정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패턴화될 수 있다. 농민은 다양한 시장에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농장 안에서 자원을 생산하거나 재생산할 수도 있다. 소, 사료, 건축, 퇴비, 종자, 노동력, 지식, 운영 자본, 건축물 등 관련된 모든 사회적·물질적 자원에 대해서 말이다. 농민은 시장 거래를 통해서 그런 자원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때 자원은 상품으로서 생산과정에 투입된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는 그 자원을 개별 농장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재생산할 수도 있다. 아니면 [지역에서] 사회적으로 조절되는 교환관계를 통해 얻을 수도 있다. 심지어 농민 스스로 갖고 있는 자원(예: 저축)을 전환하여 (농기계처럼) 농장에서 생산할 수 없는 자원을 얻을 수도 있다. 이는 농기계를 구매하려고 대출을 받는 것과는 대조되는 방식이다. ... (중략) ... 농민의 영농은 개별 농장 안에서 생산되고 재생산되는 자원의 상대적 자율적인 흐름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다. 그림에 나오는 ‘관계a’와 ‘관계b’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 (중략) ... 재생산 과정을 통해 농민은 견고하고 잘 조정된 자원 기반을 한층 더 심화 발전시킨다. 총생산 가운데 일부분만 판매한다. 다른 일부분은 농장 안에서 재사용한다. 재사용되는 생산물은 순환회로에 투입되었다가 되돌아온다.

- 반 데 플루흐(2008: 27-30).

반 데 플루흐가 말하는 ‘농민의 자율성’ 개념 속에는 농사에 소용되는 것들을 의존적인 관계가 아니라 농민 스스로의 능력으로 확보하고 영농의 순환적 과정 안에서 재생산하고 발전시키는 실천이 포함됩니다. ‘종자’가 그 사례입니다. 내가 농사지은 것으로 내년 농사에 쓸 종자를 얻지 못한다면, 돈을 주고 종자를 사야 합니다. 그 자체로 경제적으로 현명하지 못한 일입니다. 종자 회사에 품종 선택권을 넘겨주는 꼴이 되므로 그만큼 자율성을 잃게 됩니다.

11년 전의 일입니다.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고추 농사를 짓는 분들을 따라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을 (사실, 웬만한 농민은 다 아는 사실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젊고 의욕이 있고 기술도 있는 농민들 가운데에는 유기농 또는 적어도 무농약으로, 그도 어렵다면 최대한 농약을 적게 써서 고추를 재배하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재배한 고추를 양건으로, 흔히들 하는 말로 ‘태양조’ 고추로 건조하여 판매하면 훨씬 나은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역농협에서는 그런 양건 고추를 매취하지 않았습니니다. 주로 집에서 김장을 담그는 50대 이상 연령층 가정주부를 상대로 직거래할 때 판매하기가 쉽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종자회사에서 판매하는 고추 종자는 거의 모두 대과종 아니면 극대과종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고추 열매가 크고 과피가 두꺼운 품종이었던 게지요. 이런 품종은 무게는 많이 나가지만 햇볕에 잘 마르지 않고 썩기 일쑤여서 양건에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주로 경유를 사용하는 화력 건조기로 말리는 화건에 적합하지요. (물론, 이 경우에 다시 기름 값이 들어갑니다.) 지역의 마을회관마다 뿌려진 종자회사 카탈로그에는 ‘마니따’, ‘천하통일’, ‘왕대박’ 등 이름도 재미난 수십종의 고추 품종이 소개되었지만 양건에 적합한 소과종 품종은 ‘진미’라고 하는 것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진미’가 토종 종자는 아니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재배되었던 것이지요. 종자회사 카탈로그에는 가끔 나오지만 실제로는 잘 판매하지 않는 종자였습니다. ‘진미’라는 종자를 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결국, 대과종이나 극대과종을 선호하는 종자회사가 주도권을 가진 상황에서, 농민들의 선택 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했고 먹기에 안전하면서 건조과정에서도 에너지 자원 낭비를 줄이는 그런 고추를 기대하는 소비자들의 선택 폭도 제한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영농과정에서 경험으로 그리고 지역사회 농민 공동체 안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품종 선발 및 개량’ 과정도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 3

‘토종 종자’를 지키는 실천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운동은 농업(agriculture)이 더 이상 문화(culture)가 아니라 산업(industry)이기만 한 세상의 질서가 강요하는 단작(monoculture)의 흐름에 맞서며, 생태적인 혹은 유전자원(genetic resource)의 다양성을 보전하려는 노력일 터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많은 논자들이 풍성하고 깊게 논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 했던 것은, 제 생각에 두 번째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이었습니다. 씨앗을 지키는 것은 농민의 자율성을 회복하려는 실천이기도 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영농활동의 앞뒤

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들이 농업 노동과정에서 재생산되지 않고 시장이나 국가 기구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종자뿐만 아니라 비료, 자재, 판로, 노동력 등 수많은 요소들이 농민이 자율성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 종자는 말할 것도 없고, 육묘장에서 포트묘를 구입해서 정식하는 방식의 농사가 일반화되는 현실은 조만간 ‘호미의 골동품화’를 초래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토종 종자를 지키자는 것이 단지 사라져가는 유산을 보전하자는 수준의 낭만주의적인 발상의 소치로 여겨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상상을 해 봅니다. 연구보고서 따위의 글을 써서 밥 벌어 먹고 사는 저에게, 연구과제 수행 기간 동안에 필요한 책이나 논문 따위의 자료를 제공하고 연구가 끝나면 그 자료를 다시 걷어가고 제가 쓴 모든 글이나 각종 자료도 회수한 다음에 다른 연구과제를 시작할 때 다시 필요한 것들을 그때 새로 주는 업무 환경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제가 결코 연구자로 남을 수 없습니다. 그때그때 외부에 의존하여 받은 자료에만 의존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끝나고 마는 ‘정보처리기계’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나의 노동은 그저 월급을 받기 위한 것일 뿐 그 밖의 어떤 의미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재배·사육 수수료’만 받는 농부가 농업 노동자일지언정 농민일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민한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서 오늘 말씀드리기는 어려웠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과제는 ‘토종 종자를 지키려는 노력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의 문제일 듯합니다. 하나의 농장에서, 한 농가에서, 한 명의 농민이 충분히 다양한 종자를 유지 재생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듯이) 상품교환관계가 아니라 호혜와 협력에 기초한 다른 형식의 교환관계 속에서 씨앗을 풍성하고 다양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고 발전시킬 전략과 대안을 꾸준히 논의해야 하리라 짐작해 봅니다.